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1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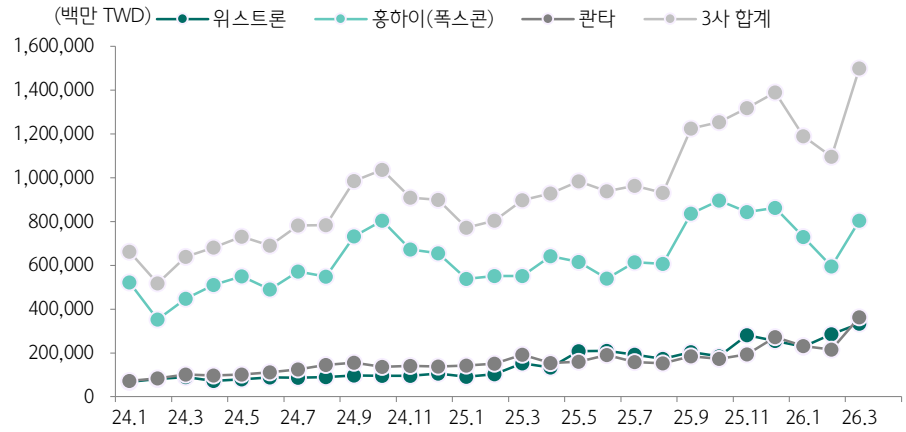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미국 AI 인프라(IT 하드웨어)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 기대

불안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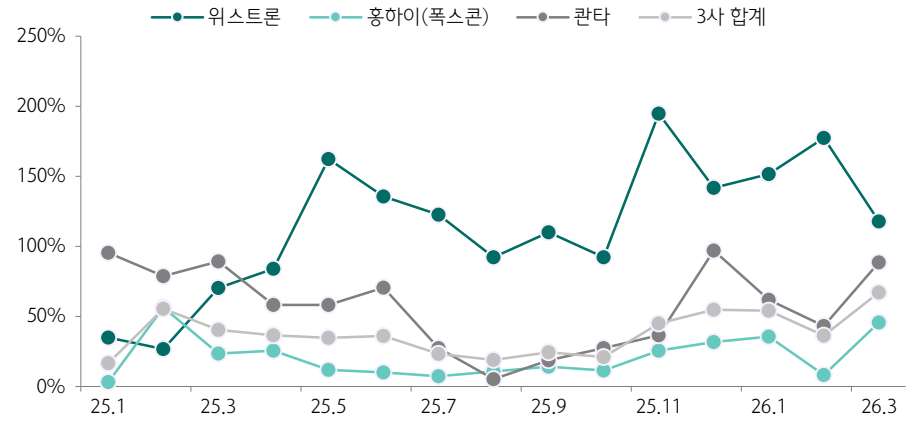
- AI 인프라(하드웨어)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을 기대한다. 4월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가 4월 미주Pick에서 주장한 것처럼 시장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엔비디아의 서버랙을 제조하는 대만의 ODM 업체들은 견조한 월간 매출을 발표하고 있다. 5일 홍하이(폭스콘)는 AI 클라우드 제품과 AI 서버용 랙의 강력한 수요를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2분기는 미국 IT 기업들의 비수기이지만, 견조한 수요 덕분에 AI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안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 엔비디아 GB 계열 AI 서버 랙 공급망에 속한 대만 ODM 업체들은 견조한 월간 매출을 발표했다. 위스트론, 홍하이, 콴타 컴퓨터의 3월 매출은 3,330억 대만 달러(YoY +117.7%), 8,037억 대만 달러(YoY +45.6%), 3,628억 대만 달러(YoY +67.1%) 등이다. 1분기 매출은 위스트론 8,463억 대만 달러(YoY +144.3%), 홍하이 2조 1,296억 대만 달러(YoY +29.7%), 콴타 컴퓨터 8,092억 대만 달러(YoY +66.6%)다. 합산 기준 3사의 3월 매출은 1조 4,996억 대만 달러(YoY +67.1%), 1분기 매출은 3조 7,851억 대만 달러(YoY +53%)다.
- 엔비디아 연동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스트론의 최근 월 매출은 가파른 YoY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5개월 연속 세 자릿수 YoY 성장률). 위스트론은 2026년 AI 서버가 회사 매출의 약 70%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 플랫폼 노출도를 70~80% 수준으로 가정하면 엔비디아 제품 수요의 영향력은 50% 초중반 수준이다. 콴타 컴퓨터는 2025년 기준 전체 매출 중 서버향 매출은 70% 수준인데, 2026년 AI 서버향 매출 비중 목표를 전체 서버 판매의 80%로 제시했다. 보수적으로 70%를 가정하면 전체 매출 대비 AI 서버 매출은 49% 수준으로 잡을 수 있다. ASIC향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70%를 가정해 추정한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35~40% 수준이다.
- 홍하이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 두 회사에 비해 엔비디아 제품의 영향력은 적으나, 절대 판매량이 많은 기업이다. 홍하이는 2025년 AI 서버 매출을 1조 대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25년 홍하이의 연간 매출이 8조 1,031억 대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AI 서버향 매출은 12% 수준이다. 홍하이는 3월과 1분기 견조한 실적은 AI 클라우드 관련 제품의 판매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2분기 가이던스에선 ICT 산업의 전통적인 비수기이지만 AI 랙 판매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 TSMC도 견조한 3월 매출과 1분기 매출을 발표했다는 점도 AI 하드웨어 호실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TSMC의 3월 매출액은 4,152억 대만 달러(YoY +45.2%)고,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1,341억 대만 달러(YoY +35.1%)다. 이번 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TSMC는 견조한 AI용 제품 생산 수요와 전망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에 대해선 수요 대비 타이트한 상황을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 대만 IT 기업들의 월/분기 매출과 회사의 코멘트 등은 AI 서버와 랙 관련 제품 수요가 여전히 강한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AI 인프라 하드웨어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거시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만들 수 있는 증시 변동성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에는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도표1. 대만 ODM 3사 월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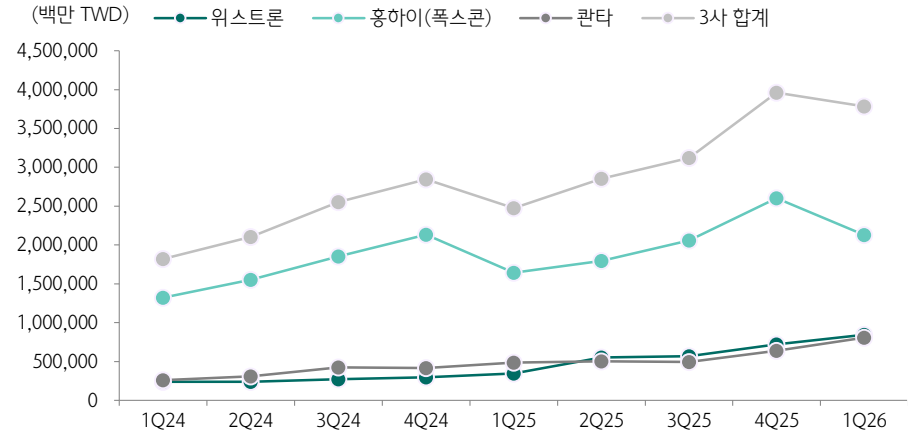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YoY) 대만 ODM 3사 월별 매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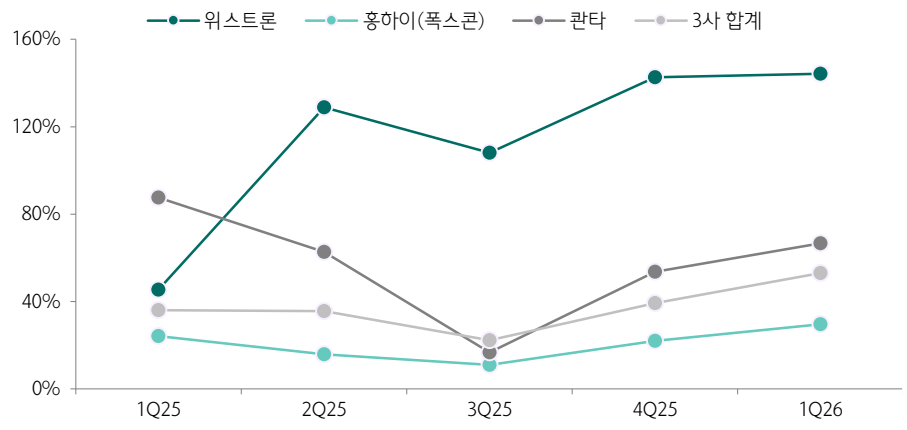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3. 대만 ODM 3사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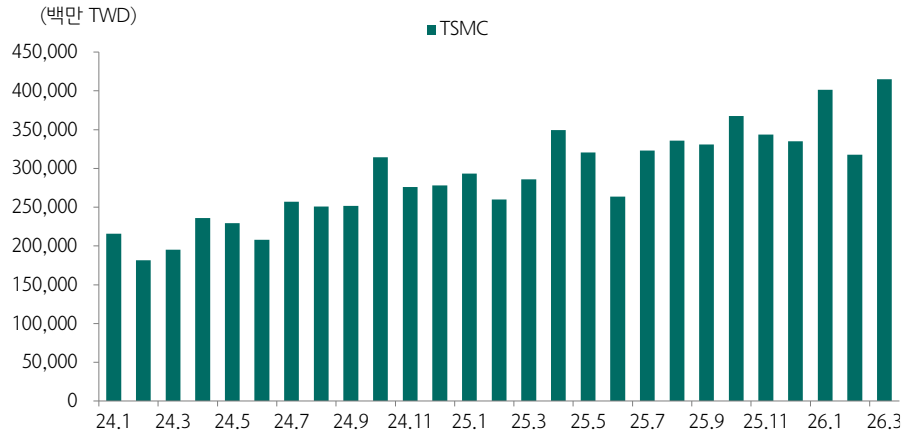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4. (YoY) 대만 ODM 3사 분기별 매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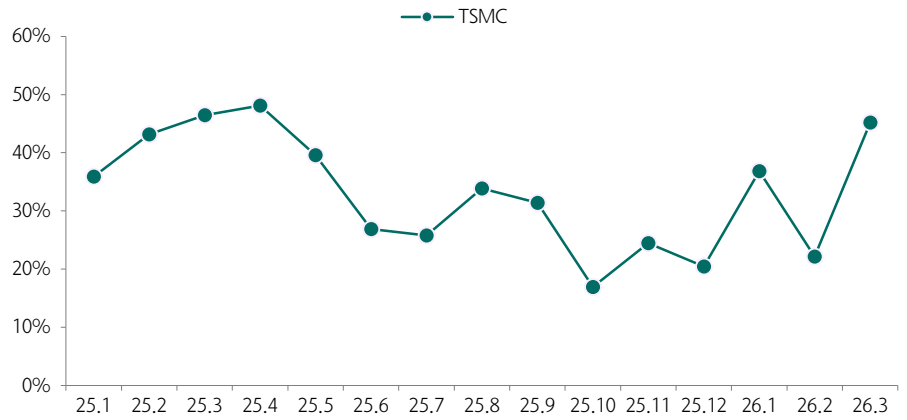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5. TSMC 월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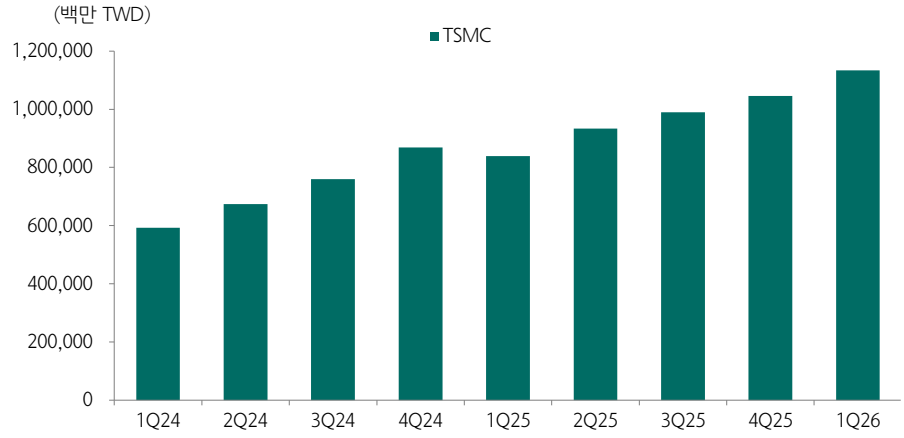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6. (YoY) TSMC 월별 매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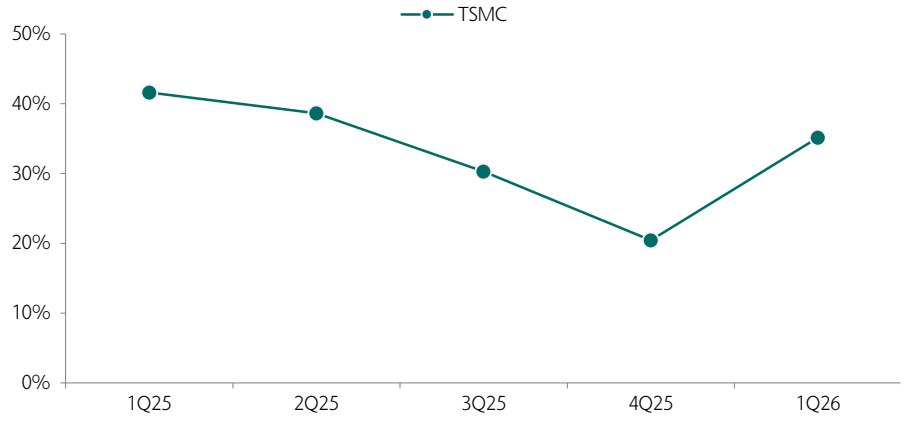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7. TSMC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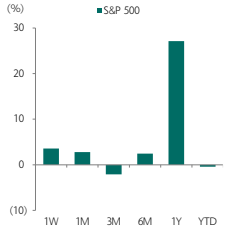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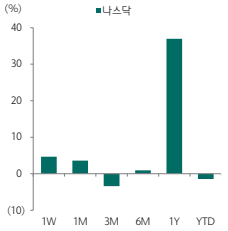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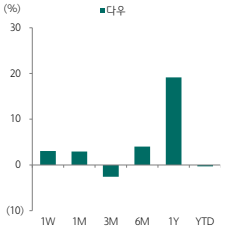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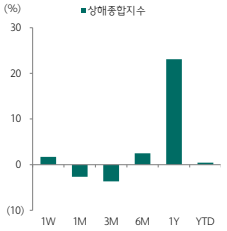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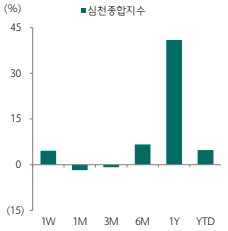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8. (YoY) TSMC 분기별 매출 증감 추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6,816.9	22,902.9	47,916.6	3,986.2	2,652.3
1W (%)	3.6	4.7	3.0	1.7	4.6
					

주) 4월 10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4월 3일~4월 11일) 리뷰: 휴전 기대감에 2주 연속 상승

- 미국 증시는 휴전 기대감 지속되면서 2주 연속 상승했다. 미국 3대지수의 등락률은 다우 +3%, S&P 500 +3.6%, 나스닥 +4.7%다. 나스닥이 다우 및 S&P 500 동일가중지수보다 강했다는 점은 시장참여자들의 기술주 선호를 시사한다. S&P 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 2000(중소형주 지수)은 각각 1.8%, 4% 상승했다. 중소형주 강세는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변동성지수(VIX)는 19.4% 급락했다(23.9 → 19.2).
-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선호했다는 점도 투자심리 회복을 보여준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 모두 상승했지만, 성장주 ETF의 수익률이 더 우월했다. VUG는 4.3%, VTV는 2.2% 올랐다. 우리는 4월 미주Pick을 통해 포성이 멈추면 성장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대형 기술기업(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4.9%, 비 M7 ETF인 XMAG는 2.6% 올랐다. M7 기업 중에선 테슬라(-3.2%)와 마이크로소프트(-0.7%)만 하락했다(AMZN +13.6%, META +9.6%, GOOGL +7.3%, NVDA +6.3%, AAPL +1.8%).
- 증시 상승에도 하락한 테슬라에 대해 고유가 장기화 수혜 기대 약화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친환경 ETF, 태양광, 풍력 ETF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다(ICLN +4.8%, TAN +0.7%, FAN +3.8%). 본업인 전기차 수요 약화가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4월부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비우호적인 업황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기준 테슬라는 113,000대로 3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시장점유율도 11.9%에서 10%로 줄었다. 주요 판매처의 경쟁 심화와 제한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영향으로 보인다.
- 아마존은 성장하는 AI 시장 투자 본격화 소식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AI 모멘텀이 약했다. 아마존은 2026년 약 2천억 달러 수준의 자본지출을 예고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AI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것이다. 아마존도 알파벳처럼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알파벳이 시장참여자들에게 각광받은 이유에는 설치기반 전략 확장에 대한 기대도 있다. 강력한 플랫폼(클라우드) 덕분에 고객들의 자체 개발칩 및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AI 인프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아마존에게도 반영될 수 있다. 아마존의 공격적인 투자 소식은 전반적인 AI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호재다.
-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약해지면서 에너지(-4.1%)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했다. 상승 상위섹터는 경기소비재(+5.8%), 커뮤니케이션(+5.8%), 정보기술(+4.8%) 등이다. 경기소비재의 수익률은 아마존이 견인했다. 정보기술 하위섹터 중 반도체의 강세가 인상적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반도체 ETF(SOXX)는 13.8% 상승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선 인텔이 가장 강했다(+23.8%). 테슬라와의 테라팹 협업 소식이 긍정적 모멘텀이다. 방어적 성격의 섹터인 헬스케어(+0.4%), 필수소비재(+0.5%), 유틸리티(+1.3%) 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부진했다. 소프트웨어 ETF(IGV)는 7.1% 하락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리가 약한 상황에서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시장참여자들의 AI 공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버리는 앤트로픽의 고속 성장을 근거로 팔란티어를 저격했다. 부정확한 정보이며 게시물을 내렸다.

≫ 이번 주(4월 13일~4월 17일) 프리뷰: 미국-이란 갈등 지속, PPI, 기업 실적 발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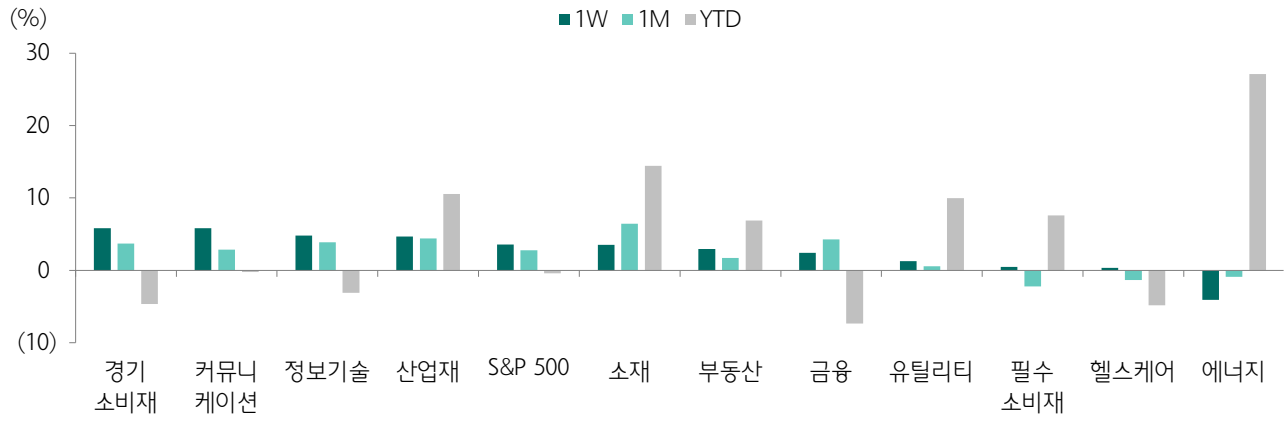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주목할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증시는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동안의 임시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휴전 기간 동안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나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주 미국의 수급 이벤트(4월 15일 미국 분기 추정세, 17일 옵션 만기 등)와 겹치며 투자심리가 다소 약할 수 있으나,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면 변동성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경제지표 중에선 3월 생산자 물가지수(PPI) 발표에 주목할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2월과 비교하면 높아졌다. 헤드라인 CPI는 YoY +3.3%(예상치 +3.4%, 이전치 +2.4%), MoM +0.9%(예상치 +1%, 이전치 +0.3%)였고, 근원CPI는 YoY +2.6%(예상치 +2.7%, 이전치 +2.5%), MoM +0.2%(예상치 +0.3%, 이전치 +0.2%)였다. 높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야기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다.
-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뜨겁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물가가 상품 물가 대비 더 강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예전 수준처럼 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거비 반등은 있었으나 의료 서비스 물가로 상쇄되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 상승압력은 제한적이었다. 관세의 영향은 남아 있으나, 마무리 국면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의류, 신차, 가정용 가구 및 운영비가 상승했지만, 중고차와 의료 재화 등이 하락하며 전체 근원 상품 물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일부 상품들은 관세 영향이 남아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 컨센서스는 YoY +4.6%, MoM +1.2%다. 전월치 YoY +3.4%, MoM +0.7%를 상회한다. 시장참여자들은 헤드라인 PPI가 2월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유가가 3월에도 높았기 때문이다. 근원 PPI 예상치는 MoM +0.3%인데, 증시참여자들은 2월 발표치(MoM +0.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PPI 발표를 통해 관세 및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참여자들은 가늠하려 할 것이다. 예상보다 높을 경우 통화정책 불안을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 이번 주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ASML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시장참여자들은 ASML의 실적 발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관련된 힌트를 살펴보려 할 것이다. 현지시각 2일 공화당의 마이클 바움가트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MATCH 법안 때문이다. 초당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이 150일 이내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 제한 품목은 리소그래피(DUV Immersion 등), 첨단 식각/증착 장비, 기존 허가 품목 및 서비스와 부품 등이다.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부품과 업그레이드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대상 중국 기업도 상대적으로 명확한데, SMIC, CXMT, YMTC, 화홍, 화웨이 계열사 등이다. ASML의 실적 발표 후 질의 응답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이다.
- 이번 주 발표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4월 13일 3월 기존 주택 판매(이전치 4,090,000 건), 14일 미국채 3년 및 6년물 입찰 / IEA 월간 보고서 /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이전치 98.8)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26,000 건) / 3월 헤드라인 PPI YoY(예상치 +4.6%, 이전치 +3.4%) / MoM(예상치 +1.2%, 이전치 +0.7%) / 3월 근원 PPI MoM(예상치 +0.3%, 이전치 +0.5%), 15일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이전치 +6.51%) / 4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지수(예상치 -0.5, 이전치 -0.2) / 3월 미국 수입 및 수출 / 4월 NAHB 주택 시장 지수(예상치 38, 이전치 38), 주간 원유재고(이전치 3,081,000 배럴), 16일 베이지북 /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예상치 7, 이전치 18.1),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15,000 건, 이전치 219,000 건)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5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16일 보우먼 연준위원(비둘기, 투표권 있음)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비둘기, 투표권 있음), 18일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월러 연준위원(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13일 GS / FAST / UNTY, 14일 JPM / JNJ / WFC / C / BLK / ACI / KMX, 15일 ASML / BAC / MS / PGR / PNC / JBHT, 16일 TSM / NFLX / PEP / ABT / SCHW / PLD / AA / SNAP, 17일 TFC / RF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4/10)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6,816.9	-0.1	3.6	2.8	-2.1	2.4	27.1	-0.4
나스닥	미국	22,902.9	0.4	4.7	3.6	-3.4	0.9	36.9	-1.5
다우	미국	47,916.6	-0.6	3.0	2.9	-2.6	4.0	19.2	-0.3
STOXX600	유럽	614.8	0.4	2.9	3.2	0.7	8.5	26.3	3.8
KOSPI	한국	5,801.5	-1.0	6.4	5.7	23.6	61.8	138.5	37.7
KOSDAQ	한국	1,097.4	0.3	4.8	-4.8	15.6	27.5	57.8	18.6
상해종합지수	중국	3,986.2	0.5	1.7	-2.7	-3.7	2.5	23.1	0.4
심천종합지수	중국	2,652.3	1.5	4.6	-1.8	-0.9	6.6	40.9	4.8
항테크지수	홍콩	25,893.5	0.5	4.5	1.7	-3.6	0.0	23.8	1.0
TOPIX	일본	3,738.9	-0.0	2.6	3.0	3.9	16.9	51.6	9.7
니케이 225	일본	56,550.2	-0.7	5.9	5.1	5.6	17.6	68.4	12.3
니프티 50	인도	24,050.6	1.2	5.9	3.9	-6.5	-4.7	5.4	-8.0
Vietnam	베트남	1,750.0	0.8	3.9	3.2	-8.0	-0.9	43.2	-1.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4.1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경기소비재: 아마존의 강력한 상승이 섹터 수익률 견인. AI 산업 투자 본격화 소식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키움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과 메타의 저가매수세 유입
- 정보기술: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 협상 소식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4/7	**브로드컴, 구글·앤트로픽과 AI 칩 공급 계약 확대** • 브로드컴이 구글과의 AI 칩 생산 계약을 확대하고 앤트로픽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주가 6% 급등.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통해 구글의 TPU(텐서처리장치) 기반 약 3.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제공할 예정. 브로드컴 주가는 이란 전쟁발 에너지 비용 급등 및 AI 투자 우려로 연초 대비 약 10% 하락한 상태였으나 이번 계약 발표로 반등. 미즈호는 "구글과의 긴밀한 TPU 파트너십이 브로드컴의 입지를 강화한다"며 매수의견 유지. 씨티도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구글 계약을 토대로 브로드컴의 매출이 1,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4/8	**미·이란, 2주간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사실상 합의** •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7일,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 마감 90분 전 발표된 것으로,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의 중재가 계기가 됨. 이란도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승인했다고 NYT가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핵문제·호르무즈 해협 관리 등을 담은 이란의 10개항 제안서를 수령했으며, 2주 휴전 기간 내 합의 마무리를 전망. 미·이란 직접 협상은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 예정
4/8	**메타, 신규 AI 모델 '뮤즈 스파크' 출시…주가 6.5%↑** • 메타가 첫 주요 독점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하며 오픈AI·구글 추격에 나섬. 지난 4월 오픈소스 모델 라마4 흥행 실패 이후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Scale AI 출신 알렉산드르 왕 최고AI책임자가 이끄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가 개발 주도. 메타는 향후 API를 통해 외부 개발자에게 유료로 기술을 제공하는 수익 모델도 검토 중. 한편 메타는 2026년 AI 관련 설비투자로 1,150억~1,350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
4/9	**미국 2월 근원 PCE 3.0%↑ - 전쟁 전부터 인플레 압력 지속** • 미 상무부, 2월 PCE 가격지수가 YoY +2.8%, MoM +0.4%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근원 PCE는 YoY +3.0%, MoM +0.4%로 1월(3.1%)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3%대 유지. 연준은 2% 물가목표 달성 여부 판단 시 CPI 대신 PCE를 기준으로 삼음. 이번 지표는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치로, 전쟁 전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했음을 시사. 한편 2월 명목 개인소비지출은 MoM +0.5%로 예상치(0.6%)를 소폭 하회
4/9	**미국 4분기 GDP 확정치 +0.5% - 셧다운·수출 부진에 시장 전망 하회** • 미 상무부, 작년 4분기 실질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0.5%로 시장 전망치 및 잠정치(+0.7%) 모두 하회했다고 발표. 지난해 1분기(-0.6%) 이후 최저치로 3분기(+4.4%) 대비 큰 폭 둔화. 셧다운 여파로 정부지출이 5.6% 급감했으며, 수출도 3.2% 감소. 소비지출(+1.9%)과 투자 증가가 성장에 기여했으나 이를 일부 상쇄. 근원 PCE 가격지수는 +2.7%로 잠정치와 동일
4/10	**미국 3월 CPI MoM +0.9% - 이란 전쟁發 에너지 급등 반영** • 미 노동부, 3월 CPI가 MoM +0.9%, YoY +3.3%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에너지 지수가 MoM +10.9% 급등하며 전체 상승분의 약 3/4을 차지, 이란 전쟁 충격이 물가에 본격 반영. 반면 근원 CPI는 MoM +0.2%, YoY +2.6%로 예상치(2.7%)를 하회하며 완만한 흐름 유지
4/12	**미·이란 협상 결렬,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 미·이란이 2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핵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2일 결렬.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농축 우라늄 반출 및 핵 프로그램 영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미 해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모든 선박의 입출항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해협 내 기뢰 제거 및 이란 잔여 세력 섬멸도 예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봉쇄 시도 시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군사적 보복을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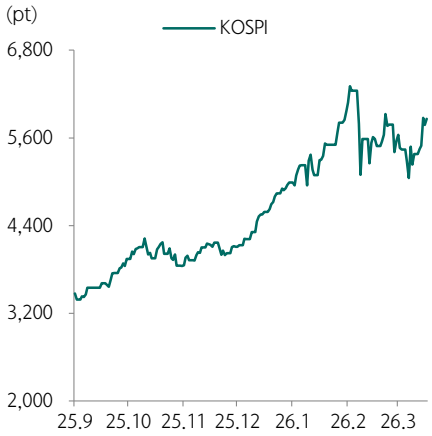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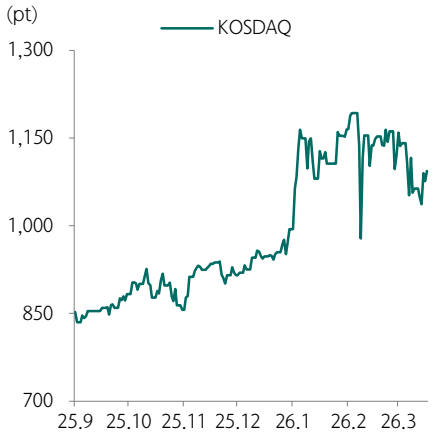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PRGS	NKE MKC FDS TE	CAG LW	AYI	
6	7	8	9	10
	LEVI	DAL STZ RPM APLD	PGR	BLK
13	14	15	16	17
GS FAST UNTY	JPM JNJ WFC C BLK ACI KMX	ASML BAC MS PGR PNC JBHT	TSM NFLX BX FCX PEP ABT SCHW PLD AA SNAP	TFC RF PG
20	21	22	23	24
SCHW	GE UNH VZ ISRG LMT DHR NOC UAL	PM GEV IBM T CME KMI ELV	AMZN MA CAT INTC MCD AXP KLAC HON NEM WDC FSLR AAL	XOM CVX ABBV
27	28	29	30	
KO CDNS AMP	GOOGL MSFT TSLA V RTX PEP NEE TXN	META LRCX AMGN TMO BA NOW EQIX STX AMT F CMG	AAPL LLY MRK LIN COP SHOP BMY PH HWM PWR REGN 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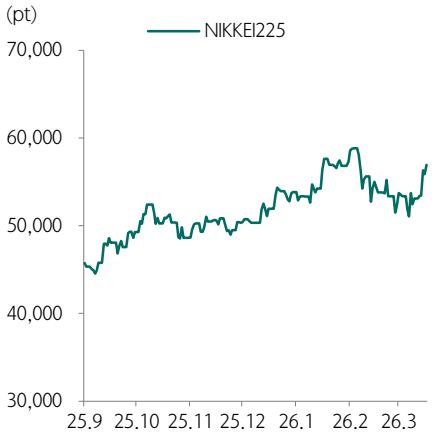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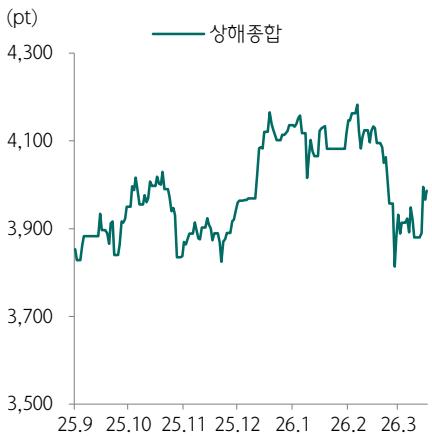
4/13(월)	• 3월 기존주택판매 (이전치 4.09M) • 연방재정수지
4/14(화)	•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이전치 98.8) • PPI (이전치 MoM +0.7%, YoY +3.4%) • PPI 근원 (이전치 MoM +0.5%, YoY +3.9%)
4/15(수)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16): 경제 성장·규제 완화·에너지 자립 등 정책 조율 • 원유 재고 (이전치 3.081M) • 3월 수입/수출 물가지수 (이전치 MoM 0.7%/0.5%)
4/16(목)	• 연준 베이지북 공개 (3:00 AM KST) • 4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이전치 -22.6) •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이전치 18.1)
4/17(금)	• 미국 옵션만기일 • 미국 AACR(~22):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 국내외 기업들의 차세대 항암제, ADC 등 연구성과 발표 기대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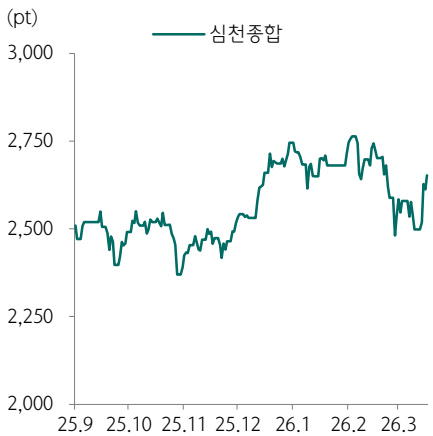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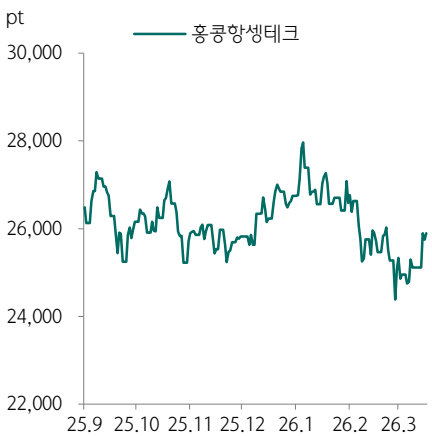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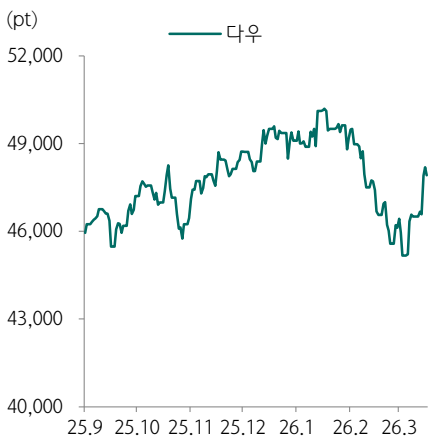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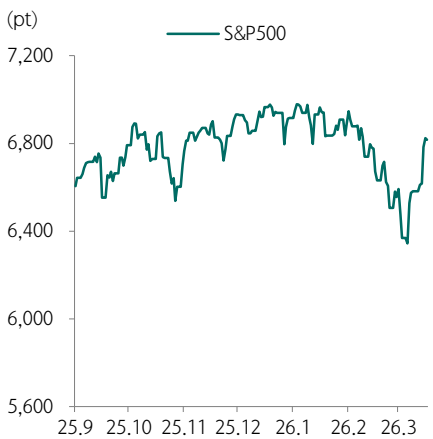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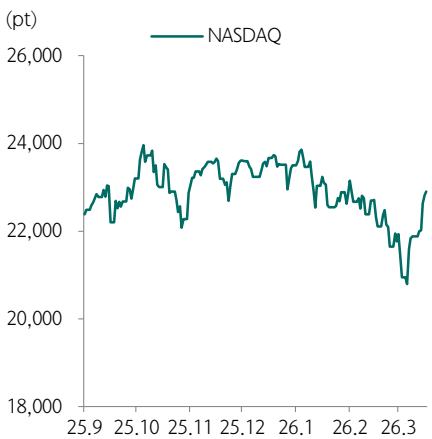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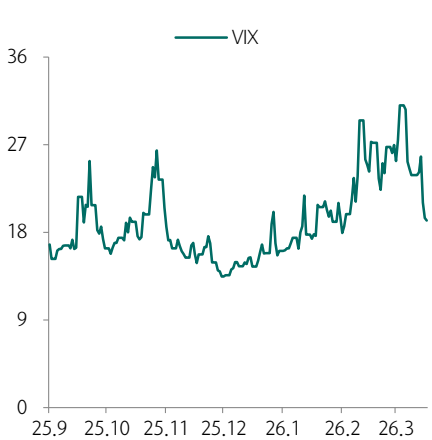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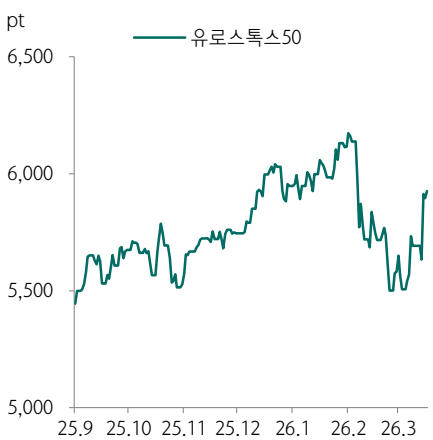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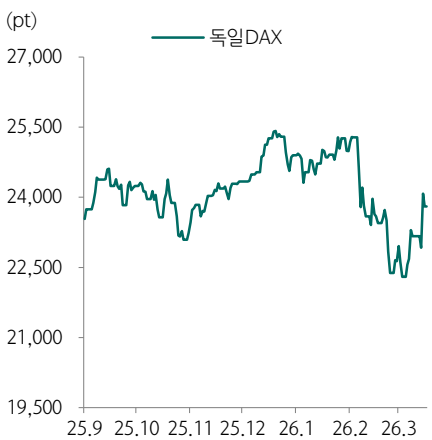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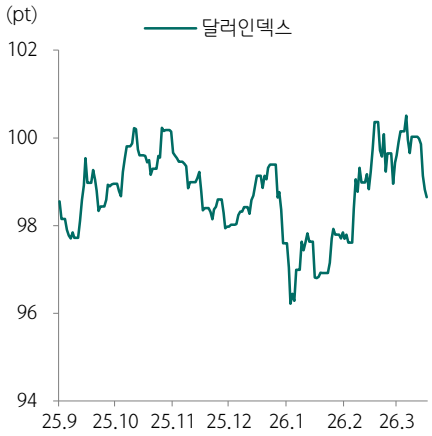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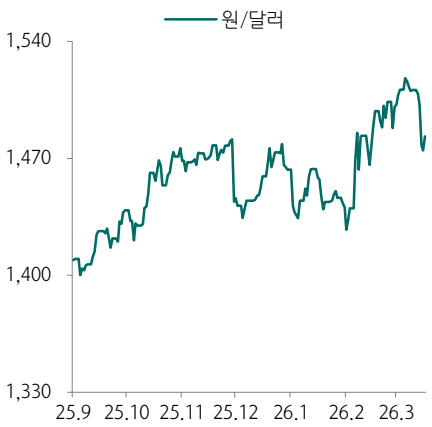

VIX
36
27
18
9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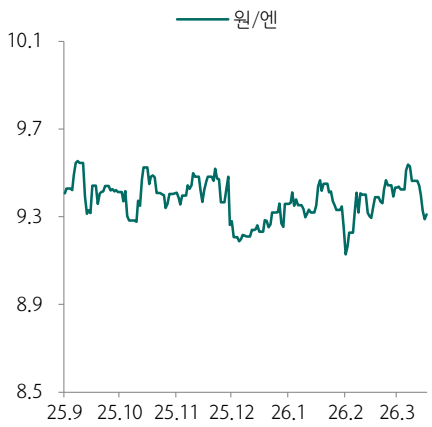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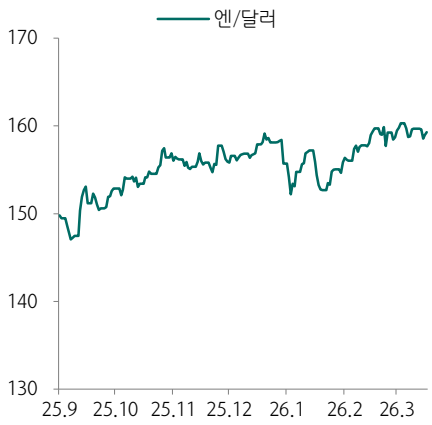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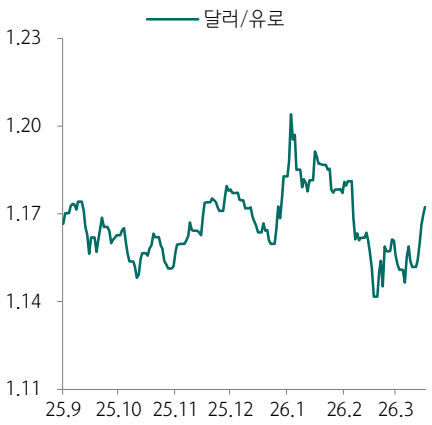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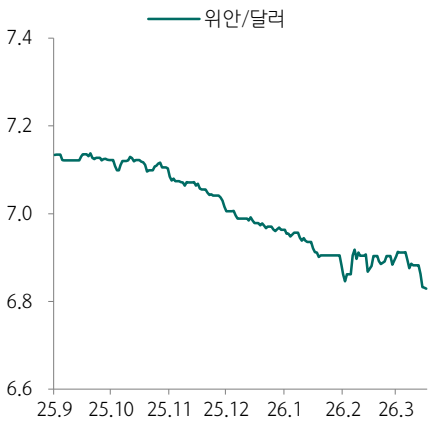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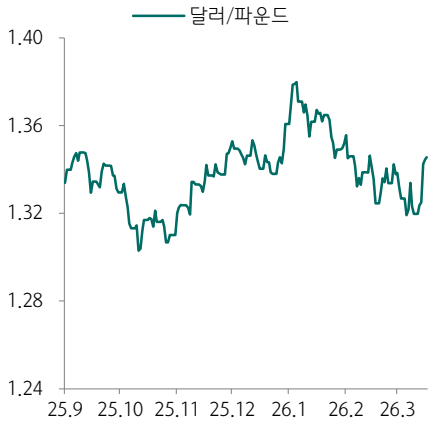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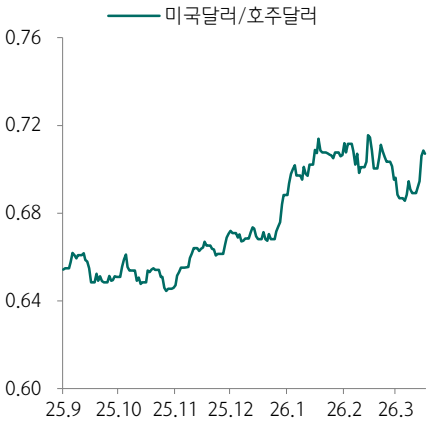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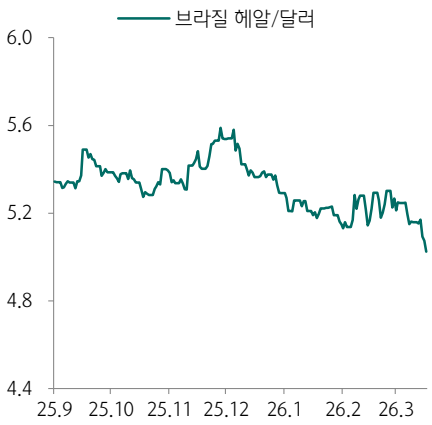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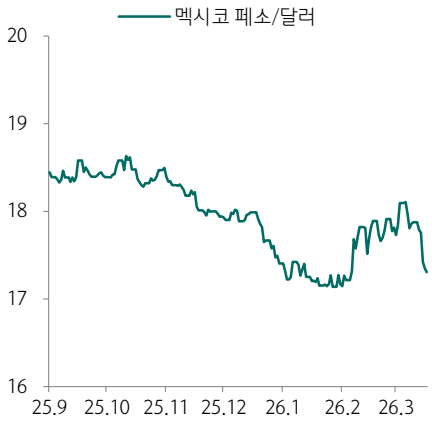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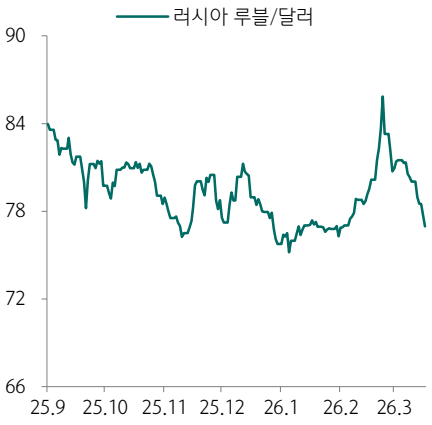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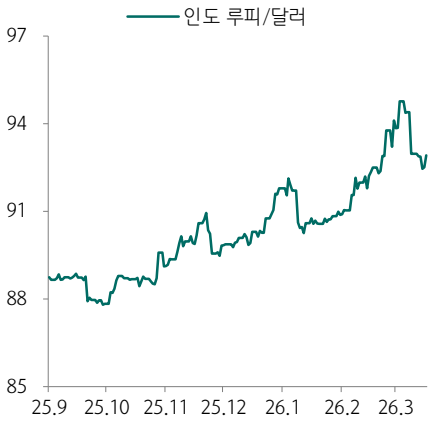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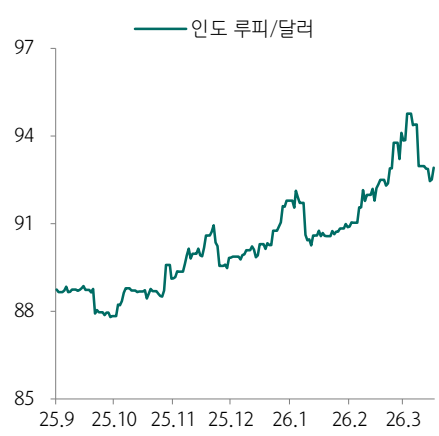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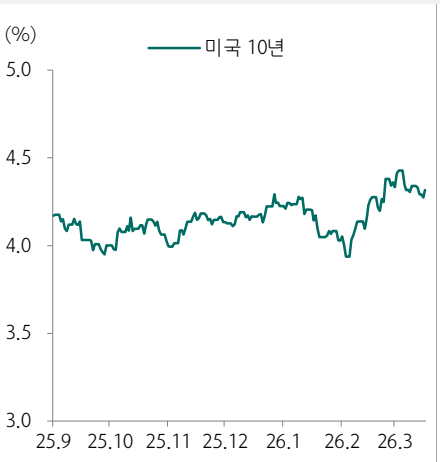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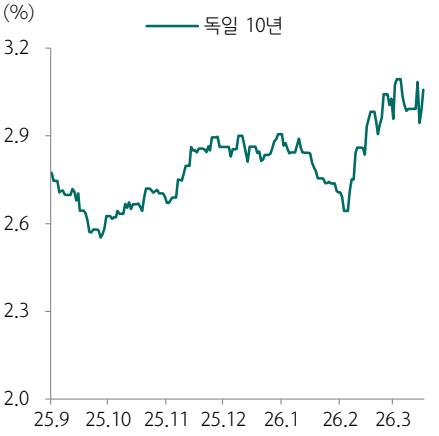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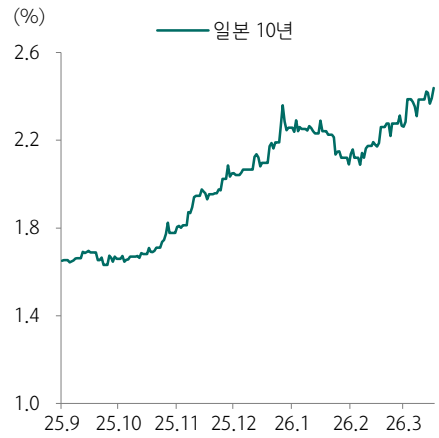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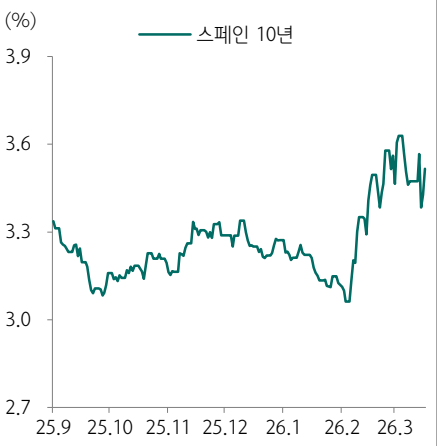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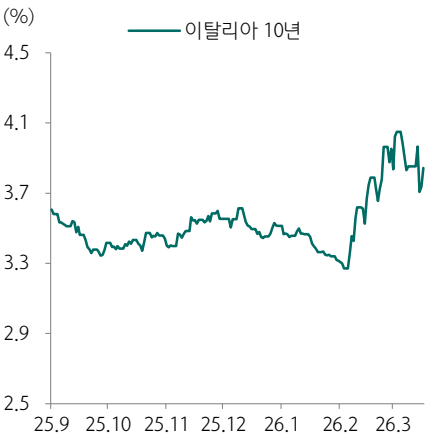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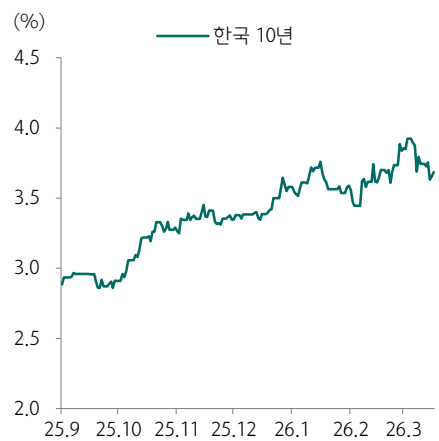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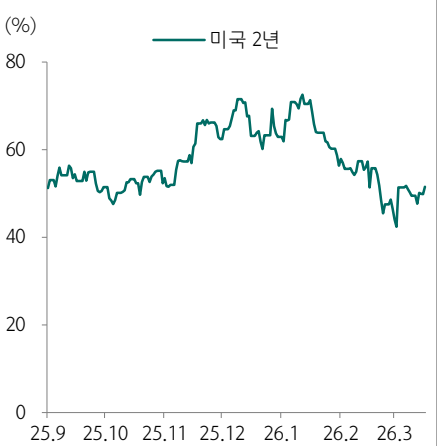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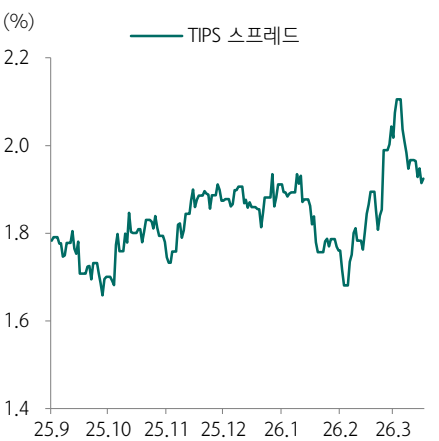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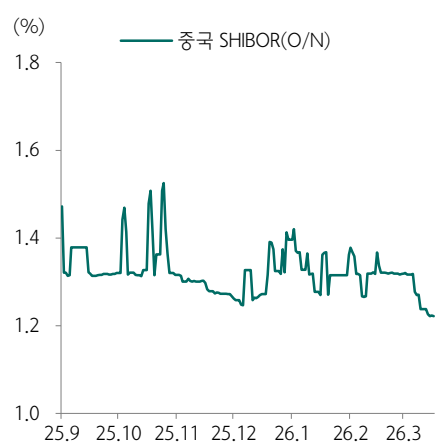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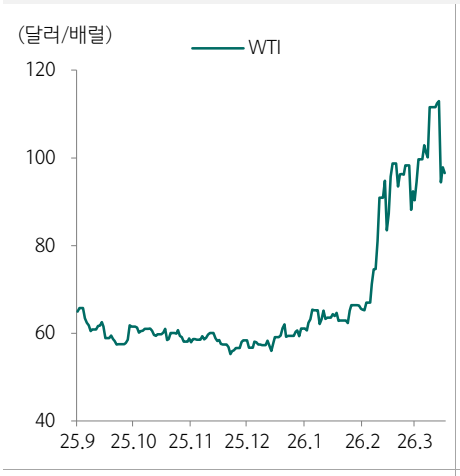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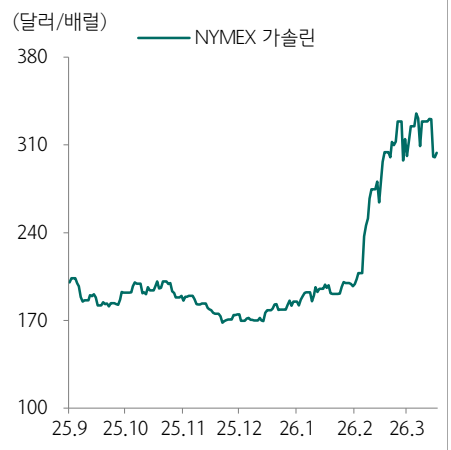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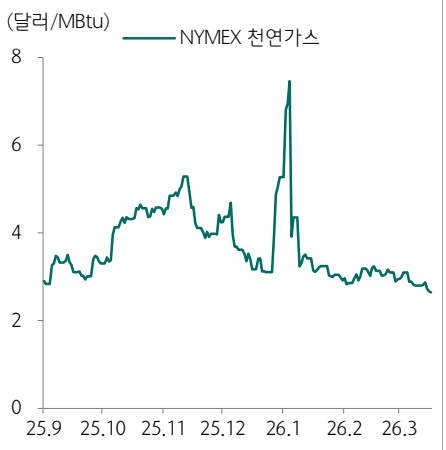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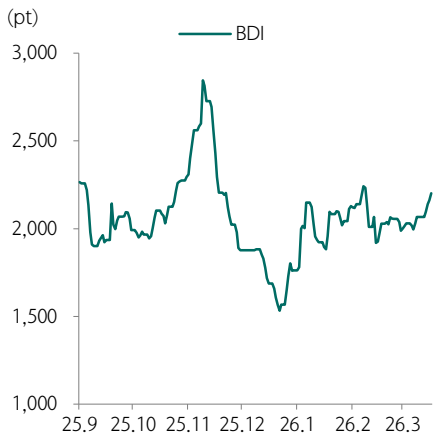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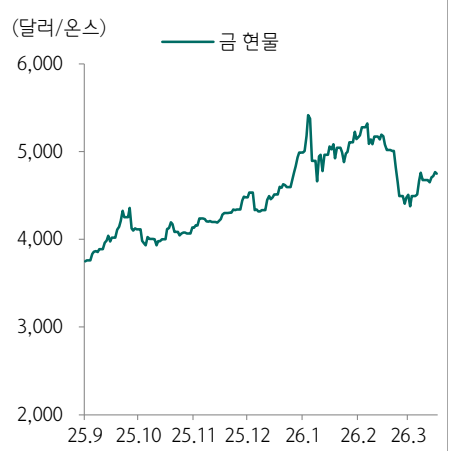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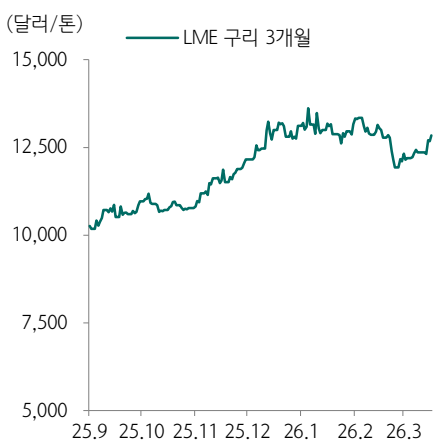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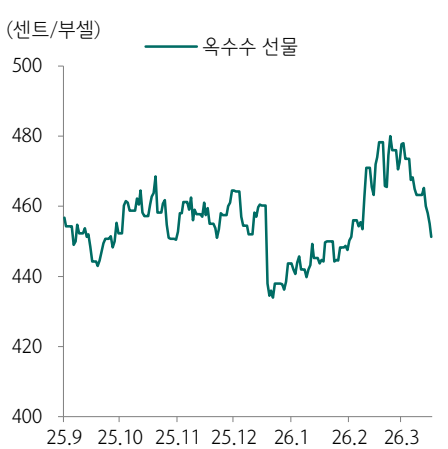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4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